

계속사업은 신청 '가능'

“중단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템플스테이 사업, 전통사찰 보수지원비, 문화재 보수지원비,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등에 대한 신청과 집행은 보류해달라. 단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과 더불어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은 예외로 한다.”

총무원, 국가예산 관련 중무지침 본·말사에 하달 문화·복지사업도 인정



기획실장 원담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지난 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교구본사 총무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중무지침을 전달하며 본말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추가 중무지침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 해 12월 전통문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여당의 낱치기 예산 통과를 계기로 불교문화재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로 천명된 뒤, 일선 사찰에서 혼신에 있어 새롭게 중무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담스님은 이어 정부 여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전환되고 이에 따른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중단의 지침에 따라 템플스테이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지원비, 문화재 보수지원비,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등의 예산 보조 신청과 집행은 철저히 보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연달인 한나라

당이 당내 특별기내인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수립 중인 전통문화 발전 계획안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 보조 신청 및 집행 보류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담스님은 “MB정권과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현 정권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모든 종도가 가져야만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종도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사업은 공사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9년 예산이 결정돼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중이라면 올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지난 2010년 예산이 확정된 뒤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던 사업은 전면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결정 후 “추가 예산을 신청하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안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시달렸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은 단순히 불교행사가 아닌 이웃과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종교 본연의 사업인 만큼 예산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총무원은 교구본사 총무국장에게 이같은 중단 지침을 전한데 이어 빠른 시일내에 중무지침을 하달하고 교구본사주지회의 회의를 통해 중단의 입장을 재차 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주지 스님들이 전통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마치 구걸하듯이 예산을 지원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 종도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단 집행부를 믿고 민족문화 수호와 5대 결사에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월2일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병택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김봉석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 손수일 법무법인 로콜 대표변호사, 구상진 서울시립대 교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종빈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정석원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불교발전에 기여해 달라”

조계종, 법률자문단 위원 김동건 변호사 등 5명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 5명의 범조불교인 구성을 범조불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법률자문단 위원으로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를 비롯해 구상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빈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손수일 법무법인 로콜 대표변호사

들이 위촉됐으며, 실무를 맡을 간사 소임은 김봉석 법무법인 신아 대표변호사(전 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맡게 됐다. 특히 이번 법률자문단 구성은 범조불자문단으로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업무만 맡는 게 아니라 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법률자문을 통한 중단의 외호신장으로 중단과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부처

님 은혜에 미약하나마 보답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으로 활약하겠다고 서원한 만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또 “불교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불자를 네크워킹화하고 있다”면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범조불자문의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만큼 빠른 질책하면서도 편안하게 중단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o.com

중앙승가대 91명 입학 전체수석은 자공스님

2011학년도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스님)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중앙승가대에 입학한 스님은 81명으로 특히 사회복지학과와 불교학과에 55명의 스님이 입학했으며, 10명의 스님이 3학년으로 편입했다.

또 대학원 입학인원은 총 38명으로, 박사과정 11명, 석사과정 27명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전체 수석으로는 포교학과 자공스님이 차지했으며, 전체 차석은 불교학과 원담스님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수석과 차석입학의 영광을 안았다.

총장 태원스님은 “학부와 대학원에 입학한 스님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중생제도와 교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o.com



문수경전연구회, 논산법당불사 동참

부산 문수경전연구회는 논산훈련소 범당신축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회장 정오스님은 지난 2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십사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대

작불사의 원동력이 된다”며 “정성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회장 정오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군법당 마련 불사에 헌신하고 있어 작은 정성이지만 모아왔다”며 “군법당이 마련되면 앞으로 올바른 불자를 기르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o.com

독일로 간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ITB 국제박람회 참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스님)이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인 독일관광박람회(Internationale Tourismus Boerse)에 참석해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단장 정만스님과 대외협력위원장 대안스님 등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베를린 국제박람회에서 열리는 ITB에 참석해 사찰음식을 통한 템플스테이를 홍보한다.

ITB는 전 세계 187개국에서 1만1127개 업체들이 참가해 각국의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대규모 관광박람회다. 사업단은 ‘생명존중 사상과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사업단은 “독일 박람회를 통해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콘텐츠를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현경 기자

가짜 조계종 승려증 유포 호법부, 사찰에 ‘주의’ 요청

조계종 명칭을 도용한 ‘가짜 조계종’이 판치는 가운데 가짜 승려증까지 유포돼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에 따르면, 지난 3일 화계사를 찾아온 3명의 승려가 여비를 요구, 승려증을 확인한 결과 가짜 승려증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승려들은 승려증이 가짜라는 것이 탄로나자 그대로 달아났다.

가짜 승려증은 실제 승려증에 있는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총무원장 직인이 실제보다 작다는 점 외에는 외형상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조계종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중단 특이인 삼보륜까지 도용했다는 점에서 총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전국 사찰에 주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울지마 톤즈’ 팀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제작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태석 신부가 비록 타종교 성직자이지만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돼 전 총무원과 함께 울지마 톤즈를 관람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격려했다. 구수환 울지마 톤즈 PD는 “종교차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는 등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스님이 있으면 꼭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o.com

본·말사 주지 인사

3월2일, 3일 총무회의의 결과



시진스님
총무원장



법성스님
총무원장



지문스님
대우 무학사



진일스님
무주 원통사



혜선스님
의정부 성불사



무공스님
경기광주 명성암



동성스님
해남 도장사

불기2555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입학 모집 안내

해인사승가대학 신입생, 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안내

모집대상

- 신입생 00명
- 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2학년 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자필) 1부
3. 성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4. 주민등록등본 2부
5. 건강진단서(행차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제외) 2부
6. 보행기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제 질병과 사고를 치료할 수 있는 상해보험) 각1부
7. 은사스님 추천서 1부
8. 은사스님 인적사항 [법명, 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9.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x4, 만의가사) 8매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정(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기 합천군 가야면 차인리 10번지 해인사(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류 접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 불기2555(2011)년 3월 18일(금요일)
신입학 : 불기2555(2011)년 3월 18일(금요일)

입학시험

- 입학 시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 서류전형
신입학 : 불기2555(2011)년 3월 19일(토요일) 오전 8시
(시험과목 : 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초발심사경문)

- 합격자 발표 : 불기2555(2011)년 3월 19일(토요일) 오후 6시

- 입학 식 : 불기2555(2011)년 3월 20일(일요일)

문의처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차인리 10번지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934-3081, 3100

불기2555년 3월

☎ 해인사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해인사 주지 晦庵 善覺 ·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道嚴 海月

